

코스피 연일 최고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상승세 견인

증권가 '제2의 삼성전자' 찾기

3분기 '반도체 업종' 실적 기대감
디스플레이·조선·상사 등도 포함
LGD·포스코퓨처엠·대덕전자 유망

최근 증권가가 '제2의 삼성전자' 찾기에 분주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깜짝 실적(3분기 영업이익 12조원대)을 낸 뒤 상승세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실적 개선 기업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약 7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성장에 예상된다.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할 경우, 약 57조원으로 성장률도 7.2%로 줄어든다.

NH투자증권 역시 지난 12일 기준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77조



ChatGTP로 생성한 '올라가는 코스피 증시를 기대하며 투자 분석 중인 투자자들'

5000억원 수준으로 잡았다. 최근 20영업일 동안 8% 상향 조정된 결과다. 업종별로는 반도체(9.0%), 에너지(6.2%), 건설(4.6%), 디스플레이(38.7%) 업종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가장 높은 업종은 단연 반도체다. 통상적으로 코스피는 3분기에 부진한 실적 흐름을 보여왔지만, 올해는 반도체 업황의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된 만큼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코스피의 3분기 실제 영업이익은 추정치 대비 다소 부진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3분기는 반도체 호황 국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추정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분기 실적 시즌 개막과 함께 성적표를 공개한 삼성전자는 분기 최대 매출을 발표하며 '깜짝 실적'을 내놓았

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은 86조원으로 분기 매출 최초로 80조원을 넘겼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81% 증가한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를 17.4% 상회한 것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10조9142억원으로 55.25% 성장에 예상된다. 분기 최초 영업이익 10조원 돌파다.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코스피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시즌에 진입한 가운데,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예 따른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제언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조선, 상사 등에 대한 주목을 언급한다. 하나증권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업종군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상사 등을 꼽았으며, 교보증권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상사·자본재 등을 언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설, 호텔·레저 등을, 현대차증권은 반도체,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조선, 상사 등을 제시했다.

정상희 교보증권 연구원은 "3분기 이익 컨센서스의 상향 추세가 크게 나타난 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기계, 상사·자본재, 증권 업종"이라며 "과거 동분기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이상 5개 업종이 실적 기대감을 높인 일등공신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포스코퓨처엠, 대덕전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SK, 유한양행 등을 제시했으며, 교보증권은 현대모템, 하나금융지주, LG화학, 크래프톤, 미래에셋증권, 현대글로비스, 에코프로비엠, 에이피알 등을 예상했다. 하나증권은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키움증권, 산일전기, 한국금융지주, LG이노텍, 더존비즈온 등을 제안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글로벌엑스, 美 ETF 운용자산 100조 돌파

미래에셋운용의 해외 ETF 자회사 7년 만의 성과… 101개 ETF 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해외ETF 운용 자회사인 글로벌엑스(Global X)가 미국 현지 운용자산 100조원을 돌파했다. 2018년 인수 이후 7년 만의 성과로, 미국 ETF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6일 "글로벌엑스의 미국 내 운용자산(AUM)이 735억 달러(약 104조9990억원)를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글로벌엑스는 15일 기준 미국에서 총 101개의 ETF를 운용 중이다.

2018년 미래에셋이 글로벌엑스를 인수했을 당시 운용자산은 약 100억 달러(약 8조원) 수준이었다. 이후 2023년 말 424억 달러, 2024년 말 539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며 인수 7년 만에 13배 성장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7.7%로, 같은 기간 미국 ETF 시장 성장률(20.2%)을 크게 웃돌았다.

글로벌엑스는 테마형과 기술혁신 중심의 ETF로 현지 투자자층을 넓히고 있다. 'Global X Defense Tech(SHL D US)'는 유럽 방산기업 비중을 확대



글로벌엑스(Global X) 임직원들 단체 사진.

/미래에셋자산운용

하고 AI 기반 방산주를 포함해 지정학적 분산 효과를 높였다. 'Artificial Intelligence & Technology(AIQ US)'는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AI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올해에만 약 28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커버드콜 ETF 'Global X Bitcoin Covered Call(BC CC US)'과 AI 모델 기반 채권형 ETF '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GXIG US)'를 출시하는 등 가상자산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상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AI 반도체 및 양자컴퓨팅 산업에 투자하는 'AI Semiconductor & Quantum(CH PX US)' ETF도 상장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ETF 자산은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등에서 운용 중인 262조원 규모로, 국내 ETF 전체 시장(약 250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12번째로 큰 ETF 운용사다.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혁신·글로벌경영부문 총괄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ETF 시장인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ETF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ETF 솔루션을 제공하고, 글로벌 ETF 운용사로서 한 단계 더욱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3분기 일평균 증권결제대금 27.4조 집계

예탁결제원, 전년비 10.2% 늘어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3분기(7~9월) 하루 평균 증권결제대금이 2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4조8000억원)보다 10.2% 늘어난 수치다. 결제유형별로 보면 주식결제대금은 하루 평균 2조2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 채권결

제대금도 25조1000억원으로 10.0%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장내시장에서의 거래도 활발했다. 3분기 장내 주식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2% 확대됐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활황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장내 채권시장 거래대금 역시 하루 평균 1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3% 급증했다. 기관투자자 부문에서도 결제 규모가 늘었다. 기관 간 주식거래 결제대금은 하루 평균 1조27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권기관투자자 결제대금은 21조6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가 하루 평균 6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52.5%)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채(3조3600억원), 통안채(9900억원), 특수채(7120억원), 회사채(361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허정윤 기자

외국인, 지난달 국내증시에 6.8조 순투자

금감원, 5개월 연속 주식시장 순매수
코스닥 순매도, 채권 7910억 순투자

외국인 자금이 9월 국내 증권시장으로 대규모 유입됐다. 주식과 채권 모두 순매수로 돌아서며 총 6조8000억원 이상이 들어왔다. 주식은 5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고, 채권은 한 달 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6조68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5330억원을 사들인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4650억원을 순매도했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은 7910억원을 순투자했다. 매수 19조9000억원, 매도 9조8000억원, 만기상환 9조3000억원으로, 8월 순회수 이후 한 달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전체 상장증권(주식+채권) 순투자 규모

는 6조8590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3조원 이상 순매수가 집계된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성 매도가 이어졌다. 유럽 지역에서도 1조원가량의 순투자가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선진국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졌다.

9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1014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9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시가총액의 28.7%를 차지한다. 상장채권 보유액은 308조3000억원으로 한 달 새 1조6000억원 늘어 전체 상장잔액의 11.3%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하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확대로 외국인의 한국시장 투자심리가 회복됐다"며 "특히 대형 기술주와 중장기물 국채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장외채권시장 급등락… 9월 94.6조 발행

금투협, 발행잔액 2986.7조 기록

9월 장외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가 방향을 잃고 등락을 거듭했다. 월초에는 글로벌 불안과 재정 우려로 오르다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후 환율 급등과 미국 경기 호조로 다시 상승 마감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16일 발표한 '2025년 9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채권 발행 규모는 94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조3000억원 늘었다. 추경에 따른 국채 공급 확대와 8월 비수기 효과가 겹친 영향이다. 발행잔

액은 298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발행은 16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등급별 스프레드는 AA-와 BBB- 모두 축소됐다. 회사채 수요예측은 69건, 4조75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줄었지만 참여율은 622.5%로 상승해 투자 수요는 여전히 견조했다.

유통시장에서는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9월 장외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143조2000억원 늘어난 516조9000억원이었다. 국채 거래량이 106조4000억원, 금융채가 20조6000억원 증가해 전체 거래를 끌어올렸다.

/허정윤 기자